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0)<sup>1)</sup>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 I. 북미

### [미국]

#### 1. (2021년 3월 2일) 美 낙농업계 불확실성 지속 전망- USDA 농업전망포럼.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수요 침체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 지속될 것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금년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낙농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농무부(USDA)는 지난 19일 개최된 농업전망포럼을 통해, “지난해 낙농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서비스업의 영업 중단 휴교령 등으로 인한 제약과 유제품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우유 및 사료 가격이 안정되며 착유두수가 증가하는 등 비교적 평탄한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착유두수가 증가하고 연말 양호한 날씨에 따른 원유생산량 및 두당 생산량 증가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약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침체되며 유제품 재고가 쌓이고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업계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거나 정부의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유제품 재고 소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고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원유생산량이 1.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9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사료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낙농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USDA의 판단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美 낙농업계 불확실성 지속 전망 - USDA 농업전망포럼,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수요 침체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 지속될 것’,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2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2월 22일자

## 2. (2021년 3월 9일) 美 낙농가수 감소세 이어져, 지난해 낙농가수 2003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미국의 낙농가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무부(USDA)가 발표한 원유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에 등록된 낙농가수는 3만 1,657호로 2003년 7만 375호에서 55% 이상 감소하며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15년 사이 네 번째로 큰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3,261호의 낙농가가 폐업한데 이어, 지난해 2,550호가 추가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USDA 관계자는 “미국 내 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은 늘어나며 원유 공급량이 과잉되고,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 낙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美 낙농가수 감소세 이어져 - 지난해 낙농가수 2003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10일자  
- 원문출처: ontariofarmer.com, 3월 5일자

## 3. (2021년 3월 16일) 美 코스트코, 공급망 혼란으로 치즈 품귀 현상 - 식료품 수요 증가로 생활용품 공급 차질

미국의 대형 마트체인점인 코스트코에서 치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치즈 등 식료품 수요 증가로 수입 물량이 폭주하며 수입품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미 서부지역 등 주요 항구로 물량이 몰리며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하역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급망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코스트코에서는 치즈뿐만 아니라, 해산물 올리브오일, 가구, 스포츠용품 등 식료품 및 생활용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같은 현상은 코스트코 외에도 주요 유통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들어 입고 지연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

해 차선책으로 항공 화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해상 운송 비용의 8~10배에 달해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공급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소매 업체는 가격 인상을 통해 운송비 상승세를 상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美 코스트코, 공급망 혼란으로 치즈 품귀 현상 - 식료품 수요 증가로 생활용품 공급 차질’,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18일자

- 원문출처: edition.cnn.com, 3월 9일자

## II. 남미

### [아르헨티나]

#### 1. (2021년 3월 9일)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악화된 경기침체로 수출업체와 정부 간 두 가지 과잉행위 모두 불안감 야기, 곡물농민 기록적인 경회<sup>2)</sup> 수확 준비

아르헨티나 곡물 농부들은 올 시즌 세계 가격의 고공행진과 항만과업이 완화되고 수개월 동안 건조했던 성장지역이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내리면서 절실히 필요한 수출 달러를 기록적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확은 국가부도 이후 고갈된 외환보유액을 다시 채워야 하는 아르헨티나 중앙정부에 매우 중요한데, 채권 가격을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유지 한 지난해 국가부도 이후 고갈된 외환보유고를 다시 채워야 한다.

주요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Emilce Terre는 “2020/21 농업 시즌은 현재 가격으로 약 375억 달러의 수출로 기록적인 외화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부터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정부는 페소와 달러 유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자본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가 수출세 인상과 정부가 부과한 국제 옥수수 및 밀 수출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설득한 후 상황이 더 밝아졌다고 말했다.

2) 경회: 국제 금융상 환관리(換管理)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通貨)와 늘 바꿀 수 있는 화폐.(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정부는 올해 초 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해 수익을 죽이고 투자를 해칠 것이라고 농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더 건조한 날씨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들판이 완화되었다. 5월 이후 콩, 옥수수, 밀밭을 바짝 말리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일시드 노동자들과 항만 작물 검사관들의 임금 파업으로 올해 초 수출이 불투명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업체와 현금이 궁핍한 정부 사이에 두 가지 과잉행위가 모두 불안감을 야기했다. 곡물 수출 회사 CIARA-CEC의 소장 Gustavo Idígoras는 “오늘은 12월과 1월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온하다”고 오일시드협회와 맺은 파업 종료 합의를 언급하며 말했다. Idígoras는 “어려운 과제들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곡물 강국은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이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돼지와 가금류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가장 큰 대두박 가축 사료 공급국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3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2월 수출업체들은 80만 톤 처리한 뒤 1월 320만 톤의 대두를 분쇄했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노동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grains farmers set for record hard currency harvest(아르헨티나 곡물 농민들은 기록적인 경화\* 수확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3월 9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823](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823))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Ⅲ. 유럽

#### [EU]

##### 1. (2020년 12월 18일) 농업·식품 등 관계 단체, 영국 EU협상에 5개의 긴급 요청

유럽 연합(EU)최대 농민 단체를 포함 4단체(아래 참조)은 12월 9일 영국의 EU 이탈(BREXIT)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이행 기간 이후인 조치에 관한 다섯개의 긴급 요청을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4단체는 최우선 사항으로서 고용 유지를 들어 위생 식물 검역(SPS)조치나 무역의 기술적 장애(TBT) 같은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규칙의 통일 및 관세와 할당 관세 없이 협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공평한 경쟁 조건의 확보 때문에 협정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아래의 다섯 가지 긴급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에서 경제적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계속되도록 협상에 관한 결론이 판명되는 대로 당장 상세한 틀을 정하는 것
- 2) 관세와 통관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의 부활이 상정되는 합의 없는 BREXIT는 특히 농업·식품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 외에 EU의 BREXIT조정 준비금(올해 7월에 새롭게 조치)에 의한 지원이 필요
- 3) 사업자가 원활하게 새로운 규칙에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
- 4)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필수적이며, EU의 농업·식품 등 관계 부문이 고용하는 수백만명의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
- 5) 이행 기간 종료 후에 예측될 혼란 등에 대응하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와 영국 당국과 대화의 지속과 함께 부문 관계자와의 대화도 할 필요

4자는 공동 성명의 마지막으로 교섭의 결과가 어떤 것에도 모든 사람의 이익 때문에 강력한 생산성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영국과 EU가 화근을 일절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EU최대의 유제품 무역 단체인 유럽 유제품 무역 협회(EUCOLAIT)는 12월 14일 영국·EU의 협상에 이미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 1) 사업자들은 이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행 기간 종료 불과 2주 전에 있어도 2021년 1월 하루 이후 관세 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에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합의 없는 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영국 간에서 WTO의 최혜국 대우(WTO회원국 간 무역에 드는 일반적 관세율)에서 거래를 의미하는 협상 결렬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2021년 1월 하루에서 협정 발효까지 사이를 현상 유지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공동 성명의 4단체는 다음과 같다.

-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
-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및 2만 2,000농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Cogeca(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에 의한 조직된 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 Copa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
-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는 EU회원국 29만 4,000개 사업자와 470만 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EU최대 식품 제조업 단체. 거래량은 EU전농 산물의 70%를 차지한다.
-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단체.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과일, 계란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유럽 식품·농업·관광 관계 노동 조합 연합회(EFFAT). 유럽 식품·농업·관광 관계 노동 조합 연합회(EFFAT)은 식품·농업·관광업의 2200만명 이상의 근로자의 이익 때문에 활동하고 유럽 35개국의 120노조(조합원 260만명)의 연합 조직이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12月18日付)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 (EU)-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年 3月号

## 2. (2020년 12월 28일) BREXIT이행 기간 종료 후의 영국 EU통상 협력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

영국 및 유럽 위원회는 12월 24일 영국의 EU이탈(BREXIT)이행 기간 종료 후의 통상 협력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2016년 영국이 실시한 EU이탈에 대한 국민 투표 이후의 오랜 세월에 걸친 양자 간의 협상은 이행 기간 종료가 12월 31일과 가까이 임박한 가운데 겨우 마무리했다.

합의 내용 중 자유 무역 협정(FTA)에 관해서는 원산지 규칙을 충족시키는 것을 요건에 전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할당 관세도 두지 않게 되었다. 한편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북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과 EU간 무역에서 위생 식

물 검역(SPS)조치가 적용되어 2021년 7월까지 시스템의 변경이나 위생 증명서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업·식품 업계도 이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의 발표를 즉각 반응했다. EU최대의 생산자 단체인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은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 유럽 농산물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와 연명에서 이날 EU농업·식품 부문의 큰 타격을 직전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2021년 1월 하루의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국경 및 유통의 혼란은 났으며, 특히 많은 고용과 농산물 가격 및 안정 공급을 위기로 50억 유로(6350억 엔:1유로=127엔)의 예산이 편성된 BREXIT 준비금 활용을 촉구했다. 더욱이 적용되는 SPS조치에 대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요구 외 영국 EU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 시에 조치하고 성공한 물류 우선 레인(그린 레인)<sup>3)</sup>의 유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럽 측은 이번 합의는 유럽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잠정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21년 2월 중을 목표로 유럽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고 발효할 전망이다.

#### [참고: 그동안의 영국·EU협상 관련 정보]

-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 (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 (EU) 【海外情報 令和2年10月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 【海外情報 令和2年6月29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 【海外情報 令和2年6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년12월28일付) BREXIT移行期間終了後の英EU의通商・協力について双方が合意-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3月号

3) 물류 우선 레인은 농산품을 포함한 식품의 우선적인 유통으로 각 회원국과의 제휴에 의한 ‘그린 레인(우선 레인)’을 창설하고, EU단일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 이 레인은 지정 주요 국경 검문소에 들어서며 검사는 15분 이내에 실시된다.

### 3. (2021년 1월 6일) 유럽 위원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2021년 농산품 뮤직 프로그램에 1.8억 유로 조치도 업계 단체들은 반발(EU)

유럽 위원회는 12월 17일 2021년의 유럽 연합(EU)역내외의 농산품 뮤직 프로그램으로서 1억 8,290만 유로(234억 1,120만 엔: 1유로=128엔)의 예산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표 1).

2021년의 프로그램은 유럽 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하고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유럽 그린 딜(참고)에 공헌하도록, 유기, 과실 및 채소, 지속 가능한 농업에 의한 농산품을 우선 사항으로 했다. 또 농산품의 국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호기로 EU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서 EU농업에 높은 기준이 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은 전년(2억 90만유로(257억 1,520만 엔)에서 약간 감소했다.

<표 1> 2021년 농산품 프로모션 프로그램 예산 내역

심플 프로그램(한 나라의 하나 이상의 조치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대상	사업예상액 (백만 유로)	비고
(EU 역내용)		
EU품질 스킴(지역적 표시보호(GI), 유기 등) 농산품의 프로모션	5.0	
유기생산 프로모션	6.0	※
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동환경을 위한 농업·식품부문의 역할 프로모션	6.0	※
신선 과일·채소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9.1	※
EU역내의 특징적인 농축산물 생산양식(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진정성, 표시, 영양 건강면, 애니멀웰페어) 및 품질, 미각, 다양성, 전통 등 특색있는 산품(EU품질 스킴 제외)의 프로모션	6.0	
소계	32.1	
(EU 역외용)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수출용 프로모션	16.3	
캐나다, 미국, 멕시코 수출용 프로모션	8.3	
기타 국가 수출용 프로모션	12.3	
유기산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프로모션	12.0	※
소계	48.9	

예비비	5.0	
멀티 프로그램(복수 회원국의 조직 또는 EU레벨의 조직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EU역내 용)		
EU품질 스킴(지역적 표시보호(GI), 유기 등) 농산품의 프로모션 또는 EU역내의 특징적인 농축산물 생산양식(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진정성, 표시, 영양건강면, 애니멀웰페어) 및 품질, 미각, 다양성, 전통 등 특색있는 산품(EU품질 스킴 제외)의 프로모션	4.2	
유기생산 프로모션	17.0	※
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동환경을 위한 농업·식품부문의 역할 프로모션	12.0	※
신선 과일·채소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10.0	※
소계	43.2	
(EU역외 용)		
EU품질 스킴(지역적 표시보호(GI), 유기 등) 농산품의 프로모션 또는 EU역내의 특징적인 농축산물 생산양식(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진정성, 표시, 영양건강면, 애니멀웰페어) 및 품질, 미각, 다양성, 전통 등 특색있는 산품(EU품질 스킴 제외)의 프로모션	25.2	
유기산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프로모션	14.0	※
소계	39.2	
예비비	5.0	
유럽위원회 계획 부분		
	9.5	
합계	182.9	

주: ※ 표시는 유럽 그린 딜, F2F 전략 관련  
 자료: EU위원회 자료로 작성

유럽 위원회 야누슈·보이 체호프 스키 농업·농촌 개발 담당 위원은 “유럽의 농업은 국제적으로도 품질이나 안전성 평가가 있지만, 갈림길에 서있다” 이라며, “유럽 농업은 지금 지속 가능성에 주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품에 부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도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예산의 절반가량(8,610만 유로(110억 2,080만 엔, 표의 ※ 표시)은 유럽 그린 딜의 농업·식품 부문의 전략인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F2F)전략(참고)에 따

른 것으로 충당되고 있다. 여기에는 유기를 비롯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농업·식품 부문의 역할을 EU와 세계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등도 포함된다. 또 역내용으로, F2F전략으로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이행으로 신선한 과일, 야채의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뮤직도 포함되고 있다.

기타 역외용으로는 품질과 특색 있는 상품의 프로모션 외에 유럽 위원회가 높은 성장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며,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모션을 대상으로 EU농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다.

세부 농산품 뮤직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모집은 2021년 초에 공고될 예정이다. 제안은 무역 기구, 생산자 단체, 농업 단체 등의 광범위한 조직이 응모 가능하다.

한편 EU최대인 농민 단체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참고)는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참고)등 농업·식품 등 관계 9단체와 연명에서 예산 조치에 대한 반발했다.

COPA-COGECA들 업계 10단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추진에 소비자 수요 등에서 일정한 이해를 제시하기도 이번 예산 조치가 현재의 유기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8%인 가운데, 예산의 약 3할 정도를 유기라는 단일적인 농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비효율이라고 했다. 시장의 실태에 맞지 않고, 다른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의 새로운 공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전체에 대한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EU농업 예산 전체가 전년 부터 4%삭감되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 예산이 그것을 높은 연평균 9%가량 절감된 것에 대해서도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이 계속, 영국의 EU이탈(BREXIT)의 이행 기간 종료가 2020년 12월 31일에 육박하면서 업계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특히 수용 곤란했다.

#### [참고: 유럽 녹색 뉴딜 및 F2F전략에 대해서]

-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 (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 (EU) 【海外情報 令和2年10月1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 【海外情報 令和2年6月29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 【海外情報 令和2年6月11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유럽 농업조직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 농업조직위원회)및 2만 2,000개 농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Cogeca(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에 의한 조직된 EU 최대의 농업 생산자단체. Copa 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단체.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과일, 계란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3年1月6日付) 欧州委員会, 持続可能性に焦点をおいた2021年農産品プロモーションプログラムに1.8億ユーロ措置も, 業界団体からは反発 (EU)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年 3月号

## [프랑스]

### 1. (2021년 3월 18일)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치즈 소비 역대 최고 - 컴포트 푸드 수요 증가로 가정내 치즈 소비량 최고치 기록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치즈 소비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수산업진흥공사(AgriM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위안을 주는 음식인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치즈 판매량이 2019년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특히 가정 내 소비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산 모차렐라 21.2% 판매량이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라클레트 치즈 판매가 12.2%, 콩테 치즈는 8.2%, 에멘탈 치즈는 7.8% 늘어났고, 우유로 만든 치즈는 9.4%, 유기농 염소치즈판매량도 3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푸드 매거진은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치즈가 식재료 또는 간편한 한 끼 식사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특히 치즈는 녹였을 때 부드러운 식감과 맛이 소비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또한 라클레트 치즈 생산자 협회(AFTAIP)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내 치즈 소비 증가로 식당 서비스업 폐쇄에 따른 수요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치즈 소비 역대 최고 - 컴포트 푸드 수요 증가로 가정내 치즈 소비량 최고치 기록’,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18일자

- 원문출처: theguardian.com, 3월 15일자

## [영국]

### 1. (2021년 3월 24일) 자연방목, 젖소의 정서적 웰빙에 도움 된다는 연구결과 나와(네이처誌. 英 퀸즈대학 연구...실내사육 젖소가 자연방목 젖소 대비 보상심리 커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사람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젖소도 실내생활이 계속될 경우 정서적 웰빙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퀸즈대학교 벨파스트 연구진은 자연방목과 정서적 웰빙의 상관관계 연구를 최초로 진행해 과학저널 네이처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연구진은 농식품 바이오 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홀스타인종 29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18일간 자연방목과 실내우사로 분리해 사육했다. 이어 사료가 담긴 버킷과 그렇지 않은 버킷을 두고 사료가 담긴 버킷에만 접근하도록 훈련을 시킨 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버킷 사이에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우사에서만 시간을 보낸 젖소들의 경우 사료 버킷에 접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이를 자연방목 젖소들에 비해 우사 사육된 젖소들의 보상심리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젖소의 동물복지 및 정서적 웰빙을 위한 자연방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자연방목, 젖소의 정서적 웰빙에 도움 된다는 연구결과 나와 - 네이처誌 - 英 퀸즈대학 연구...실내사육 젖소가 자연방목 젖소 대비 보상심리 커’,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24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3월 2일자

## [러시아]

### 1. (2021년 3월 17일) 러시아에서는 시장이 안정되면 곡물 수출 규제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어

Interfax은 러시아 농림부 장관 Dmitry Patrushev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는 시장이 안정되면 곡물 수출 규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게 소득 감소로 인해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곡물 수출 억제책과 다른 조치들을 시행했다.

Interfax은 러시아 하원인 State Duma에서 열린 회의에서 Patrushev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우리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접근법들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분간 우리는 모든 곡물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prepared to stop grain export regulation once markets stabilises(러시아는 시장이 안정되면 곡물 수출 규제를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3월 17 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838/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838/page/1))

- 원문 출처: Thomson Reuters

## [우크라이나]

### 1. (2021년 3월 11일) 거래자들은 러시아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밀을 뒤쫓아

컨설팅업체 APK-Inform의 분석가는 2021년 러시아 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무역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출을 위해 2021년산 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밀 수출세를 톤당 50유로(약 60달러)로 두 배로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 밀 수확량이 지난해 2,510만 톤에서 2021년에는 2,950만 톤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수출량 또한 이전 시즌의 1,750만 톤에서 2021년에는 2,200만 톤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K-Inform은 3월 10일 현재 12.5%의 단백질 연질밀 입찰 가격이 흑해 CPT(운송비지급조건) 톤당 217~227달러라고 밝혔다. 사료용 밀은 톤당 213~220달러 사이이다. APK-Inform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확한 우크라이나산 밀은 지난주 말 기준으로 흑해 CPT 톤당 267~275달러에 거래됐다.

정부는 전체 밀 수확량에서 제분밀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립농업과학원 3월 초 겨울 곡물 수확량이 대부분 양호하거나 우수한 상태였으며, 중부지방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리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aders chase Ukrainian wheat amid uncertainty over Russian prices(거래자들은 러시아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밀을 뒤쫓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3월 11

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829/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829/page/1))

- 원문 출처: Thomson Reuters

## IV.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1. (2021년 3월 15일) 우유 유래 면역단백질,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 - 뉴질랜드 콰텍社, 코로나19 증상 완화 효과 입증 마쳐 상용화 박차

우유에서 유래한 면역단백질(IDP) 성분이 코로나19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의 천연생리활성물질 업체인 콰텍(Quantec)이 신선한 저온살균 우유에서 추출한 면역단백질로 보충제와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한 실험실과 해당 단백질의 면역 효과 확인을 위해 협력연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완치 후 오랜 기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이 면역단백질은 50개의 생리활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이 있으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와 단순포진으로부터 세포를 억제하고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험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비강 또는 구강 스프레이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우유 유래 면역단백질,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 - 뉴질랜드 콰텍社, 코로나19 증상 완화 효과 입증 마쳐 상용화 박차’,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15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3월 11일자

## V. 글로벌

### 1. (2021년 3월 2일) 코로나19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 <가정>

[가정]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발생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와 OECD 경제전망(2020년 6월), IMF 세계 경제전망(2020년 4월) 데이터 적용

- ① 단일 충격 시나리오(시나리오 1): 초기 코로나19 대유행(2020년 상반기) 후 두 번째 확산을 막아내 안정세에 이르는 것을 가정
- ② 이중 충격 시나리오(시나리오 2): 2020년 하반기부터 2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경제적 봉쇄의 발생 가정

#### <코로나19가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 1. 수요

소득 감소는 식품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영향은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서 더 크게 작용

- 낮은 세계 경제 성장은 낮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득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식품 소비를 감소하며, 이는 1인당 칼로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

※ 2020-2021년과 2029년 모두 1인당 칼로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1% 감소

- 이러한 추세는 상대적으로 식량 소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큰 LDCs에서 더 심화, 절대적인 LDCs의 칼로리 수요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지만, LDCs의 총 칼로리 수요 감소 비율은 2020-2021년 OECD 국가보다 약 2~3배 높으며, 이 현상은 중기적으로 유지될 전망

칼로리 수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한 국가 내에서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인 ‘2030년까지 세계 식량안보에 도달’ 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
- 소득 감소로 영양가 있는 식품(과일 및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층의 ‘식사의 질’ 이 저하될 우려

##### 2. 생산과 가격

수요 감소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생산) 생산자가 낮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데 시차가 있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작지만, 중기적으로는 더 큰 감소 예상, 2029년까지 총 농업 생산량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0.8% 및 1.1% 낮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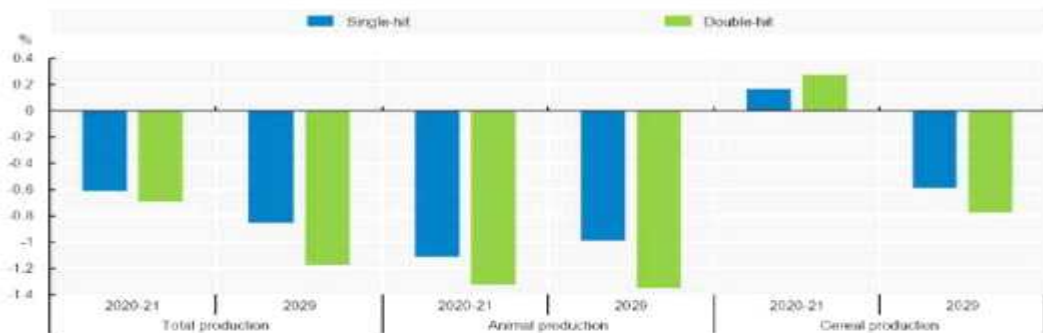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은 곡물 생산보다 크게 영향, 축산물 생산은 2020-2021년에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1.2%와 1.4% 감소할 것이며, 이후 한동안 급격하진 않지만 더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곡물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국경 봉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주곡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2020-2021년에 약간 증가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축산물 생산 감소로 인한 사료 수요 하락에 맞춰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격) 수요 감소에 대한 공급 반응이 지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농산물 과일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한 후 점차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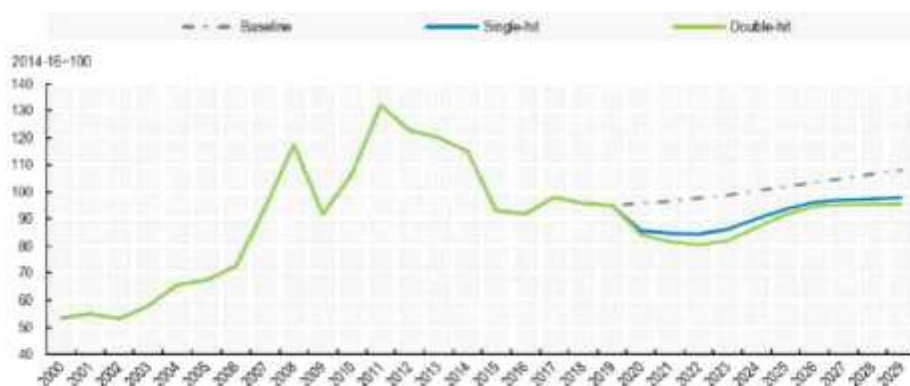
◆ FAO 식품가격 지수(FPI)는 2020-2021년에는 기준선보다 10% 이상 하락하고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9년까지 기준선 이하로 유지

Figure 2. Change in total, animal and cereal production under single-hit and double-hit scenarios compared to the baseline, 2020-21 and 2029



- (수익)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업 수익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

Figure 4. Evolution of the FAO food price index under baseline, single-hit and double-hit scenarios



- 농업 수익은 2020-2021년에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8.5% 및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로 예상

※ 평균 가격 하락은 소득 감소로 인한 가격 영향만을 반영하며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가격 영향은 포함하지 않음.

Figure 5. Change in agricultural revenues under the single-hit and double-hit scenarios compared to the baseline, 2020-21 and 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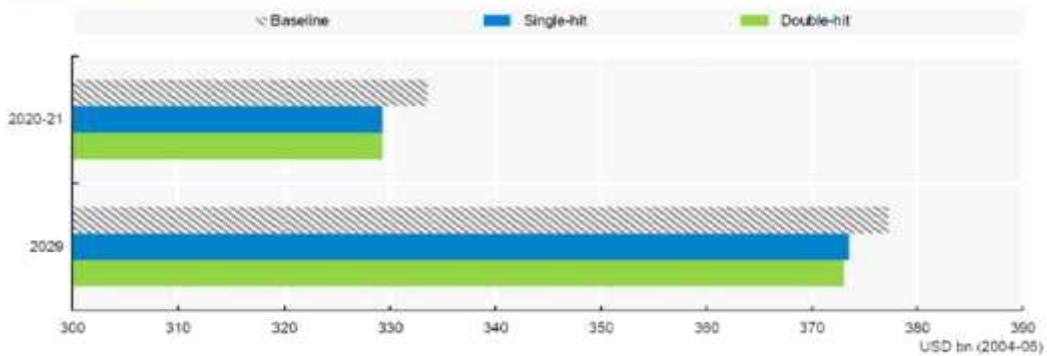


### 3. 수출

사람·물류의 이동에 대한 봉쇄와 제한은 국내외적으로 농업 교역을 둔화

- ◇ 2020-2021년 국제 농업 수출은 이동 제한과 수요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2001~2006년 기준 대비 1% 이상 감소
- ◇ 이후 점차 회복되지만 거시경제의 회복 수준과 맞물려 완전히 기준선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움

Figure 6. Evolution of agricultural exports in constant 2004-06 value under baseline, single-hit and double-hit scenarios



#### <코로나19가 농업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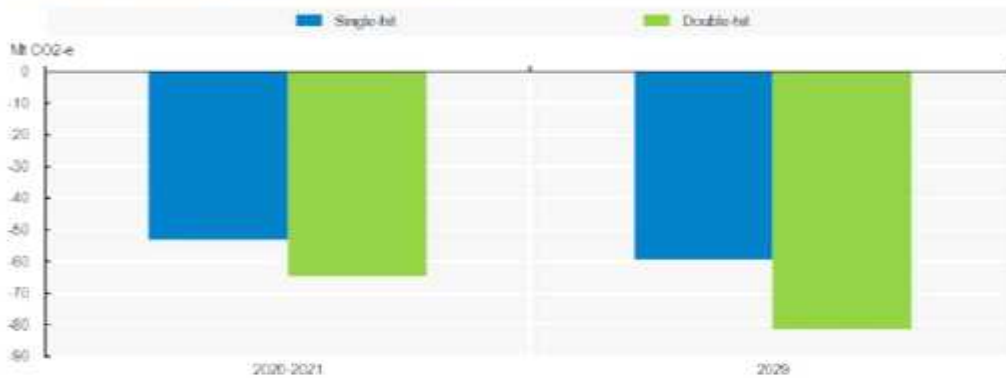
농업생산의 감소는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

- 2020-2021년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1, 2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55Mt CO<sub>2</sub>-e 및 67Mt CO<sub>2</sub>-e 감소
- 2019년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62Mt CO<sub>2</sub>-e 와 86Mt CO<sub>2</sub>-e 감소

농업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중·단기 모두 총 농업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배출 강도의 감소는 농작물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Figure 3. Absolute change in agricultural GHG emissions under single-hit and double-hit scenarios compared to the baseline, 2020-21 and 2029



감소한 것이 원인

- 총 농업생산에서 축산물의 비중 감소의 영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크게 감소하게 한 것으로 분석

### <시사점>

코로나19에 의한 농업시장의 충격은 거시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농식품의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농업인의 소득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
- 영양가 있는 식품(과일 및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층의 식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

☞ 소비자와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재난지원금, 소득보전 보험 지원 등과 함께 빈곤층에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 및 공급하는 농식품바우처,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할 필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아닌 단순 생산의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축산 부분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 19 동향 코로나19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8. 2021년 3월 2일자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OECD 코로나 19의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출처: 『The Impact of Covid-19 on Agricultural Markets and GHG Emissions』, 2020.11.25. 발간(2021.2.8.)(2021. 2. 8.)